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를 3월호를 열린도서관을 통해서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 말씀묵상 모임

‘말씀 묵상’ 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나누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과 저녁 원하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남들의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장소-교육관 소그룹실
-수요일 저녁(저녁 7시 30분) 모임은, 현재 3그룹 (남성그룹 2, 여성그룹 1)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오전10시) 모임은 여성 말씀묵상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가를 원하는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가 확정되면 4-5명을 한 그룹으로 나누어 모입니다.

• 세례교육

부활절(4/9) 주일예배 시, 장년 및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올 부활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6일(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세례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세례 교육-3월 26일(주), 4월 2일(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교구 지도자 모임>

4월 16일(주일) 저녁 6시, 속회 지도자(교구장, 속장, 인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모임은 각 속회를 위해 수고하는 교구 지도자들을 위로하고 속회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사-이철구 목사, 윤성민 전도사

• 교우 동정

[결혼] 고태영/박영희 권사님 딸 은혜양의 결혼식이 3/25(토) 잭슨빌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outh/EM 광고

1. Youth Group FNL (Friday) meeting at 7:00pm at church
2. Feed South Florida: Every Saturday at 8:00 am to 10:30 am
Volunteer hours will be offered to youth students.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0 pm
성경공부 / 목요일(격주) 7:0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 Youth/ 김학섭 목사
- 유아유치부/ 윤성민 전도사, 유초등부/ Ms. Carmen Chang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2부 플룻- 노지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오행복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김동규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 교회관리/ 전정환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28,760.00

일반헌금 \$18,260.00	십일조: \$11,980.00 주 일: \$1,500.00	감 사: \$3,270.00 기 타: \$1,510.00
건축헌금 \$330.00	약 정: \$330.00	
선교헌금 \$10,170.00	속 회: \$1,1200.00	중남미: \$9,05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2권 12호
2023년 3월 19일



2023년도 표어

“새 비전,
새 시대,
새 역사“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Korean UMC of South Florida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 P. the Poor in Spirit*
- O. Oneness in Lord's Hand*
- E. Encouragement in Christ*
-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사순절 넷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2부(10:30am)

-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 ▲ 경배찬송 Opening Hymn / 25장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27번
- ▲ 영광송 Gloria / 6장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찬송 Hymn / 265장(통199)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 기도 Prayer / 장미도 권사
-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여피 하여야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로마서 12:14-21
-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 ▲ 예배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 ▲ 경배와 찬양 / 다같이 Worship & Praise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찬송 Hymn/ 265장(통199)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 기도 Prayer / 이정석 권사
- 찬양 Choir/ 할렐루야 찬양대
- 주 예수 지신 십자가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로마서(Rom) 12:14-21
- 설교Sermon / 이철구 목사

< 내가 갚으리라! I will repay! >

- ▲ 파송찬송 Closing Hymn/508장(통270)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 ▲ 파송찬송 Closing Hymn /508장(통270)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3년 3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3월 19일	1부	온유교구	담당자	장미도권사	소망교구
	2부			이정석권사	
다음주 3월 26일	1부	온유교구	담당자	정미숙권사	사랑교구
	2부			김성현집사	

금주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롬12:14)

*인용성구/ 눅23:34, 행7:59,60, 벰전3:9, 신30:15,16

2023 사순절

40일 신약성경 통독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2월 22를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신약성경통독을 실시합니다.
사순절 기간동안 신약성경을 통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성경통독사역부 -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

2023년 2월 22일(수)-4월 8일(토)

MON	TUE	WED	THU	FRI	SAT
1월 21-22 마태복음 1-6	1월 23-24 마태복음 7-11	1월 25-26 마태복음 12-16	1월 27-28 마태복음 17-21	1월 29-30 마태복음 22-25	1월 31-2월 1일 마태복음 26-28
2월 2-3 마태복음 29-33	2월 4-5 마태복음 34-38	2월 6-7 마태복음 39-43	2월 8-9 마태복음 44-48	2월 10-11 마태복음 49-52	2월 12-13 마태복음 53-57
2월 14-15 마태복음 58-62	2월 16-17 마태복음 63-67	2월 18-19 마태복음 68-72	2월 20-21 마태복음 73-77	2월 22-23 마태복음 78-82	2월 24-25 마태복음 83-87
2월 28-29 마태복음 88-92	2월 30-3월 1일 마태복음 93-97	3월 2-3 마태복음 98-102	3월 4-5 마태복음 103-107	3월 6-7 마태복음 108-112	3월 8-9 마태복음 113-117
3월 12-13 마태복음 118-122	3월 14-15 마태복음 123-127	3월 16-17 마태복음 128-132	3월 18-19 마태복음 133-137	3월 20-21 마태복음 138-142	3월 22-23 마태복음 143-147
3월 26-27 마태복음 148-152	3월 28-29 마태복음 153-157	3월 30-3월 31일 마태복음 158-162	4월 1-2 마태복음 163-167	4월 3-4 마태복음 168-172	4월 5-6 마태복음 173-177
4월 9-10 마태복음 178-182	4월 11-12 마태복음 183-187	4월 13-14 마태복음 188-192	4월 15-16 마태복음 193-197	4월 17-18 마태복음 198-202	4월 19-20 마태복음 203-207
4월 23-24 마태복음 208-212	4월 25-26 마태복음 213-217	4월 27-28 마태복음 218-222	4월 29-30 마태복음 223-227	4월 31-5월 1일 마태복음 228-232	5월 2-3 마태복음 233-237
5월 6-7 마태복음 238-242	5월 8-9 마태복음 243-247	5월 10-11 마태복음 248-252	5월 12-13 마태복음 253-257	5월 14-15 마태복음 258-262	5월 16-17 마태복음 263-267
5월 20-21 마태복음 268-272	5월 22-23 마태복음 273-277	5월 24-25 마태복음 278-282	5월 26-27 마태복음 283-287	5월 28-29 마태복음 288-292	5월 30-6월 1일 마태복음 293-297
6월 4-5 마태복음 298-302	6월 6-7 마태복음 303-307	6월 8-9 마태복음 308-312	6월 10-11 마태복음 313-317	6월 12-13 마태복음 318-322	6월 14-15 마태복음 323-327
6월 18-19 마태복음 328-332	6월 20-21 마태복음 333-337	6월 22-23 마태복음 338-342	6월 24-25 마태복음 343-347	6월 26-27 마태복음 348-352	6월 28-29 마태복음 353-357
6월 30-7월 1일 마태복음 358-362	7월 2-3 마태복음 363-367	7월 4-5 마태복음 368-372	7월 6-7 마태복음 373-377	7월 8-9 마태복음 378-382	7월 10-11 마태복음 383-387
7월 14-15 마태복음 388-392	7월 16-17 마태복음 393-397	7월 18-19 마태복음 398-402	7월 20-21 마태복음 403-407	7월 22-23 마태복음 408-412	7월 24-25 마태복음 413-417
7월 28-29 마태복음 418-422	7월 30-8월 1일 마태복음 423-427	8월 2-3 마태복음 428-432	8월 4-5 마태복음 433-437	8월 6-7 마태복음 438-442	8월 8-9 마태복음 443-447
8월 12-13 마태복음 448-452	8월 14-15 마태복음 453-457	8월 16-17 마태복음 458-462	8월 18-19 마태복음 463-467	8월 20-21 마태복음 468-472	8월 22-23 마태복음 473-477
8월 26-27 마태복음 478-482	8월 28-29 마태복음 483-487	8월 30-9월 1일 마태복음 488-492	9월 2-3 마태복음 493-497	9월 4-5 마태복음 498-502	9월 6-7 마태복음 503-507
9월 10-11 마태복음 508-512	9월 12-13 마태복음 513-517	9월 14-15 마태복음 518-522	9월 16-17 마태복음 523-527	9월 18-19 마태복음 528-532	9월 20-21 마태복음 533-537
9월 24-25 마태복음 538-542	9월 26-27 마태복음 543-547	9월 28-29 마태복음 548-552	9월 30-10월 1일 마태복음 553-557	10월 2-3 마태복음 558-562	10월 4-5 마태복음 563-567
10월 8-9 마태복음 568-572	10월 10-11 마태복음 573-577	10월 12-13 마태복음 578-582	10월 14-15 마태복음 583-587	10월 16-17 마태복음 588-592	10월 18-19 마태복음 593-597
10월 22-23 마태복음 598-602	10월 24-25 마태복음 603-607	10월 26-27 마태복음 608-612	10월 28-29 마태복음 613-617	10월 30-11월 1일 마태복음 618-622	11월 2-3 마태복음 623-627
11월 6-7 마태복음 628-632	11월 8-9 마태복음 633-637	11월 10-11 마태복음 638-642	11월 12-13 마태복음 643-647	11월 14-15 마태복음 648-652	11월 16-17 마태복음 653-657
11월 20-21 마태복음 658-662	11월 22-23 마태복음 663-667	11월 24-25 마태복음 668-672	11월 26-27 마태복음 673-677	11월 28-29 마태복음 678-682	11월 30-12월 1일 마태복음 683-687
12월 4-5 마태복음 688-692	12월 6-7 마태복음 693-697	12월 8-9 마태복음 698-702	12월 10-11 마태복음 703-707	12월 12-13 마태복음 708-712	12월 14-15 마태복음 713-717
12월 18-19 마태복음 718-722	12월 20-21 마태복음 723-727	12월 22-23 마태복음 728-732	12월 24-25 마태복음 733-737	12월 26-27 마태복음 738-742	12월 28-29 마태복음 743-747
12월 30-1월 1일 마태복음 748-752	1월 2-3 마태복음 753-757	1월 4-5 마태복음 758-762	1월 6-7 마태복음 763-767	1월 8-9 마태복음 768-772	1월 10-11 마태복음 773-777

성경 읽은 날은 동그라미를 표시해주세요

금주 애찬 점검

208	금주 (3월 19일)	다음주 (3월 26일)
	윤미아, 윤훈로권사	장미도, 이상열권사
	결혼기념감사	범사감사
	소망교구	사랑교구

목회 칼럼 / Pastoral Column

성경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을 매우 독특하게 설명하는데,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오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되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인생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롬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했는지 거듭 강조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라고 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라고 했으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라고 우리의 실상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버려진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사41:14)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버려진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야곱처럼 비열하다는 뜻이요, 사기꾼인 야곱 같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듯 부족한 ‘야곱’인 줄을 아시면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강기에서 슬퍼하는 그들이 벌레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시의 태한 족속임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실패한 자리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려진 같은 너 야곱아”라는 부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벌레 같이 불품없고 혐오스러워보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말썽 피는 아이에게 “으이그, 똥수야”라고 하면서도 가슴에 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직장에서 진급하고, 경영하는 사업이 대박을 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행복과 기쁨은 절반의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 누군가는 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언제 임하는 것일까?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랑하며 좋아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각각의 바벨론 강기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병들거나 실패하면 우리는 벌레 보듯 하며 외면하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어 당신과 화평의 관계 안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만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남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힘이 없다 해도, “버려진 같은 너 야곱아”라는 주님의 응시를 지금 듣고 주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가수 윤영주 장로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오늘은 우리 생애 가장 젊은 날이고, 내일은 우리 생애 가장 젊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자주한다고 하는데, 주님과 화평한 모든 인생은 주와 동행하며 매일 매일이 새롭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총성1속 (평양과기대-고동훈)	총성2속 (도미니카- 피터정)	총성3속 (아틀란타- 다니엘양)
민음1속 (중국- 장은광)	민음2속 (쿠바- 김기현)	민음3속 (카자스탄- 양재성)
민음4속 (이라크- 손기주)	온유1속 (니카라과- 김향자)	온유2속 (말레이시아-김시은)
온유3속 (아리조나- 이영호)	소망1속 (니카라과- 김규현)	소망2속 (볼리비아- 김영모)
소망3속 (키르기스스탄-임다윗)	사랑1속 (태국- 이우현)	사랑2속 (터키- 송정렬)
은혜1속 (하이티2- 정 광)	은혜2속 (하이티- 김승돈)	